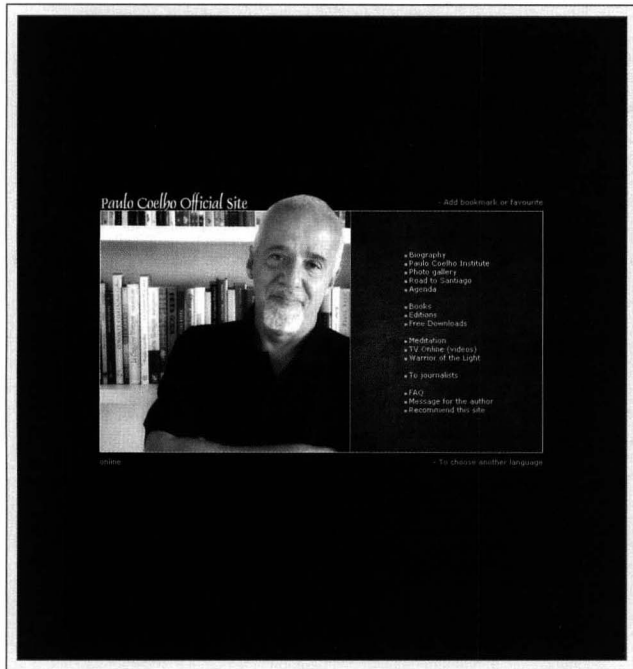


상반된 평가로

베스트셀러 목록에 나란히 오른

코엘로와 요사

Latin America, 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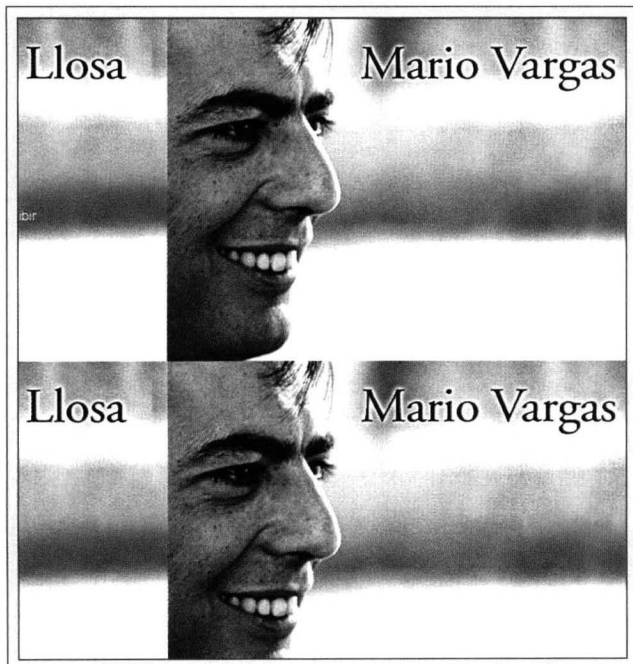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는 브라질 출신 작가 파울로 코엘로(1947~)의 《11분》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와 같은 스페인어권의 3월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등장한다.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코엘로는 자신의 영적 세계 경험을 테마로 여러 편의 소설을 썼으며, 브라질 평론계보다는 세계 문단에서 호평을 받는 조금은 특이한 작가이다.

그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자. 코엘로는 전통적 가톨릭 신도인 부모의 강요에 의해 예수회계열의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나 종교적 분위기의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낀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재능이 문학에 있음을 깨닫고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나, 그의 부모는 아들을 공학도로 만들려 하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신경쇠약 증상을 보인다. 부모는 아들을 세 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당시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 잘 그

려져 있다. 퇴원을 하면서 코엘로는 법학을 전공하려고 하나 곧 자신이 찾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학업을 중단한다. 당시 미국의 히피 운동에 영향을 받은 코엘로는 작사가로서 문인의 길을 시작하며 군사정권의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혀 감방에 갇힌다. 그러나

자신의 정신병력을 공개하면서 스스로를 '미친놈'으로 규정함으로써 목숨을 건지고 자유의 몸이 된다. 1970년대 말부터 부인과 함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코엘로는 홀연히 나타난 남자의 설득으로 그리스도교를 다시 연구하게 된다. 얼마 후 코엘로는 중세 유럽인들의 순례지였던 스페인의 산티아고로 순례여행을 떠나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7년에 《순례》를 쓴다. 이후 코엘로는 《연금술사》《브리다》를 펴내면서 일약 세계적 작가로 발돋움하게 된다.

주술적인 요소, 꿈의 세계, 환영, 환상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그의 작품 세계는 고향인 브라질보다 미국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며 이에 힘입어 2001년에는 《연금술사》가 스페인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되게 된다. 현재 56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연금술사》는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휴가를 떠나면서 독서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목을 끈 작품이다. 그의 최신작 《11분》은 브라질 북부지방 출신의 마리아를 주



인공으로 내세운다. 어렸을 때에 육체적인 사랑을 경험한 마리야는 진정한 사랑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은 고통만을 야기시키는 끔찍한 것'이라고 말한다. 명성과 부를 얻을 꿈을 꾸고 찾아간 스위스에서 결국 그녀는 창녀로 일하기 시작한다. 11분이라는 제목은 남녀가 성행위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말하면서 동시에 남녀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상징한다.

코엘로가 중남미 문학평론가들로부터는 그리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대중작가로 간주되고 있다면 역시 3월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 1936~)는 중남미 문단 전체의 찬사를 받는 세계적 작가이다. 멕시코와 우루과이에서는 그의 2003년 작 《저편의 낙원 *El paraíso en la otra esquina*》이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랐으며 과라이에서는 《거짓의 진실 *La verdad de las mentiras*》이 명단에 올랐다.

페루의 아레키파에서 태어난 바르가스 요사는 1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살았다. 볼리비아와 페루의 북부 도시 피우라에서 모친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는 부모가 재결합을 하면서 리마로 이주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섬을 의미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군사학교에서 중등과정을 거치나 결국 전학을 하며 부친이 원했던 사립대학 대신에 국립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전공한다. 18세 되던 해에 인척관계에 있던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집에서 나와 신문 기자, 라디오 방송기자로 일하면서 가장 노릇을 한다. 1959년에 《대장들》이라는 제목으로 단편집을 펴내며, 이 해에 스페인 정부 장학금을 받아 스페인으로 유학길을 떠나고 결국 문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귀국하면서 이혼을 하고 이듬해에는 사촌과 결혼하면서 바르가스 요사는 창작에 정진하며 《녹색의 집》을 펴내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그후 《카테드랄 주점에서의 대화》 《판탈레온과 아가씨들》 《홀리아 아줌마와 글쟁이》 《세상 종말 전쟁》 《마이타의 이야기》 《누가 팔로미노 몰레로를 죽였는가?》 《계모 예찬》 《리코베르토의 공책》 《치보의 축제》 등과 같은 소설을 발표했으며 평론, 희곡, 수필집을 펴냈다.

《저편의 낙원》은 2003년 작품으로 바르가스 요사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녹색의 집》이 세 개의 공간을 축으로 각각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계모예찬》이 두 개의 이야기를 병치시켜 전개하듯이, 이 소설에서도 두 개의 상이한 이야기가 번갈아 등장한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플로라 트리스탄으로 그녀 인생의 마지막 해인 1844년의 몇 개월이 시점으로 등장하며,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화가 고갱으로 그가 1892년에서 1903년까지 살았던 타히티 시절과 마르키즈 제도에서의 삶을 조명한다.

플로라 트리스탄은 페루의 대지주와 프랑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다. 부모의 결혼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플로라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으며 이 가난은 프랑스 이주 후까지도 이어진다. 그녀의 무지막지한 남편은 그녀를 괴롭히고 딸을 성폭행하며 그녀를 죽이려 한다. 플로라는 결국 그에게서 도망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알고 플로라는 유산의 일부분을 상속받기 위해 페루로 여행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레키파에 살고 있던 친척들을 방문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계층에 속한다. 플로라는 여성에게는 금지된 공장이나 가게, 감옥, 창녀촌과 같은 곳을 방문하기 위해 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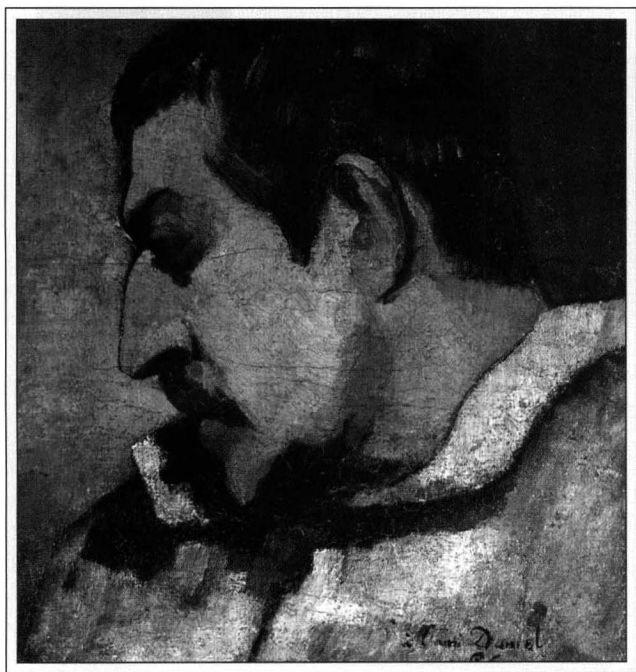
파울로 코엘로의 책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책들.

이 글을 쓴 고혜선은 한국외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인스티투토 카로 이 쿠 에르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오리건 주립대학교 스페인어과 교환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동서양문학에 나타난 거울의 이미지 *El espejo en la Lit. Occidental*》(페루) 《메스티소의 나라들》 등이 있으며 《마당 깊은 집》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아베의 가족》 《젊은 날의 초상》 등 우리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겼다.

Latin America, Spain



바르가스 요사의 책 《저편의 낙원》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화가 고갱.

고갱에게 원초적 순수함의 세계를 발견하게 해준 타히티.



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그들의 가난한 삶을 목격한다.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삶은 마치 가스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런던의 거리와 그 거리의 이면에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삶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천한 자본주의의 얼굴에 염증을 느낀 플로라는 프랑스로 돌아와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부지방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곳에서 노동자 조합을 결성시키고 여권을 신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다가 죽어간다. 그녀의 노력은 그녀가 죽은 지 4년 후인 1848년에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빛을 보게 된다.

그녀의 손자인 고갱은 바로 1848년에 태어난다. 곧이어 1851년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가 일어나며 공화주의자였던 그의 부친은 가족을 이끌고 페루의 리마로 도망간다. 여행중에 그의 부친은 사망하며, 고갱은 4년간의 어린 시절을 페루에서 보낸다. 당시의 추억은 그에게 지

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 학업을 끝낸 후, 고갱은 항해사로 남미를 여행하기도 하며 후에는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덴마크 출신 메트 소피와 결혼한다. 그러나 35세 되던 해에 미술에 정진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인과의 이혼한다. 도시생활에 지친 고갱은 남부 프랑스에서도 거처하나 문명 세계에 대한 혐오감,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적 사고방식에서 도피하기 위해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향한다. 거기서 그는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순수성이 소멸된 유럽과 달리 원초적인 순수함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자연이 제공하는 신비로움을 자신의 화폭에 옮겼다.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간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즉 이들 둘은 천국을 찾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할머니, 그리고 문명의 삶 대신에 원시의 삶에서 인간의 순수성을 발견해 내고 그 삶에 동화되어 살아갔던 손자는 둘 다 천국을 찾아 헤맨 존재들이었음을 책을 덮는 순간에 깨닫게 된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으니 이 소설이 한국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